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 9. 20.(수)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과 소통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직접 둘러보고 현장과 소통
- 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용사례, 애로사항 청취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약속

### 1 방문 개요

추석을 앞둔 9월 20일(수) 오전 10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민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최전선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지원 상담뿐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이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023.9.20.(수) 10:00~10:4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유관기관 등】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서민금융 이용자

## 2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에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였다.

먼저,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하여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4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였으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근로자햇살론] 2.6조원→3.2조원(6천억원↑), [햇살론유스] 2천억원→3천억원(1천억원↑)

\*\* [햇살론15] 900억원(신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또한,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쏙 연령대로 확대 적용하고,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금융지원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TF」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수사·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전화번호 차단 확대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3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용도로 정책자금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상담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금융권 뿐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한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아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상담 직원은 급전이 필요하여 상담센터를 방문하셨던 분에게 정책 금융상품을 추천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휴면예금 조회, 복지·취업 제도 연계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해드려 보람을 느꼈던 사례를 소개하며,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금융지원 뿐 아니라 복합상담도 폭넓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담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성미라 (02-2100-2611)
			사무관	임두봉 (02-2100-2614)
<공통>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본부장	유재욱 (02-2128-8010)
		담당자	부 장	심재철 (02-2128-8015)

